

해명자료

문의 :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디지털방송정책과 송상훈 과장(☎750-2330)
엄지현 사무관(☎750-2337) ejhyun@kcc.go.kr

디지털방송 관련 사실 보도(12.4)에 대한 방통위 해명

‘12.12.4.(화) 중앙일보의 「디지털방송,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」 제목의 사실 보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 내용

- ① 방통위는 “99% 디지털 시청 가능”하다고 부풀리고 있음
- ② 시청자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미흡한 상황임
- ③ 10가구 중 4가구가 저화질 아날로그 화면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
- ④ 방통위는 지상파 수신가정을 대상으로만 저가 전환기기 보급 등 전환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, 700만~800만에 이르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구가 디지털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
- ⑤ 전문가들은 현재 지상파방송사가 쓰는 디지털전송방식(8VSB)을 아날로그 케이블 가구에 적용하면 ‘디지털 난민’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

□ 방통위 입장

- ① 방통위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과 관련해 부풀리기 한 바 없음
※ 「디지털방송 보급률 관련 보도(12.3)에 대한 방통위 해명」 자료 (‘12.12.3) 참고
- ② 정부와 방송사의 노력으로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뿐만 아니라,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가구 등 유료방송 가입가구에 대해서도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음

- 유료방송 가입가구도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에 지상파 방송을 계속 볼 수 있도록, 일정기간 지상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 송신토록 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킴

※ 미국,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아날로그TV 보유가구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

- o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 직접수신가구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것으로,
- 세계적으로도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가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지원한 사례는 없음

③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가구도 디지털TV로 교체하면, 고화질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므로, 10가구 중 4가구가 저화질 아날로그 화면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- o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가구(786만) 중 **42.7%**(‘12.1월 기준)는 디지털TV로 고화질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 중이며, 나머지 (10가구 중 2.7가구)는 고화질이 아닌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청 중임

※ 미국의 경우,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체 가구 중 30% 내외가 아날로그TV로 고화질이 아닌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고 있음

④ 아날로그 케이블 가구는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더라도 TV시청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, 디지털방송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⑤ SO가 선정한 일부 채널을 지상파방송사가 쓰는 디지털전송방식 (8VSB)으로 송출하더라도, 아날로그TV를 보유한 가구는 해당 채널을 볼 수 없으며,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는 무관한 사항임

해명자료

문의 :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디지털방송정책과 송상훈 과장(☎750-2330)
엄지현 사무관(☎750-23372) ejhyun@kcc.go.kr

디지털방송 보급률 관련 보도(12.3)에 대한 방통위 해명

‘12.12.3.(월) 중앙일보의 「디지털 99.2% 보급? 방통위 뺑뚱기 의혹」 제목의 기사 보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 내용

- ① 방통위는 저화질 방송을 보는 1,000만 명 가량의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을 디지털방송 시청가구에 포함시켜, ‘12년 보급률이 지난해 6월 69%보다 30%포인트 급증했음
- 이는 올해 조사에서 갑자기 계산방법을 바꿔,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통위의 무리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
- ② 방통위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약 5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‘클리어캄’ 요금제도 표류하고 있으며,
- 현재까지 클리어캄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임

□ 방통위 입장

- ① 방통위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산방법을 바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을 산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

-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은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한 가구(디지털방송 시청가능가구)의 비율을 의미함

※ 해당 기기에는 디지털TV 외에도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 전송하는 디지털 컨버터,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방송 셋탑박스 등이 포함

-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한 OECD 국가(미국('09.6.12), 일본('11.7.24), 영국('12.10.24) 등) 모두 '고화질(HD) 시청가구'가 아닌 '디지털 방송 시청가능가구' 기준으로 수신기 보급률을 산정하였음

- 고화질 시청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, 디지털전환을 완료한 국가는 없음

- 방통위는 '11년 12월에 유료방송사(SO, 위성)와 협의하여 전송시설에 지상파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·송신하는 디지털 컨버터를 구축토록 하여 보급률이 대폭 상승(68.9%→94.4%)한 것임

※ 이후 디지털전환 정부지원(40만 가구), 아파트 공시청설비 개선(1,772단지) 등을 통해 현재 보급률은 99.3%까지 도달

- ② 또한, 클리어캄 관련 요금제 도입도 표류하고 있고, 관련 예산도 전무하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님

-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'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'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,

- 정부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아날로그TV 보유가구의 시청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

-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, 이용요금 감면폭 확대 방안 등은 연구반을 구성하여 논의 중에 있어, 관련 요금제 도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님

- 또한 저소득층 대상 디지털TV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'13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